

# 화순군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 복지·교육·일자리·문화 집중 만원 임대주택·청년하우스 인기 근속장려금·푸드트럭 등 지원

화순군이 청년 중심 정책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비상을 꾀고 있다. 화순군은 '청년이 살기 좋은 젊은 도시, 화순'을 만들기 위해 복지·교육·일자리·문화 등 총 4개 역점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복지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꼽을 수 있다. 올해에도 총 672명의 지원자가 몰리며 청년과 신혼부부에 게 큰 호응을 얻었다. 총 101명의 당첨자가 9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주거형 취업 지원 공간으로 제공되는 청년하우스에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스타디움, 주방, 세탁실 등을 공유 방식으로 제공하는 이곳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 구직자들이 거주하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다. 화순군 청년센터와 연계해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교육분야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미래인력 확보를 위해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중소기업 취업장려 프로그램, 청년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문을 연 청년센터 '청춘들락'은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취·창업 분야까지 확대해 청년들의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였다. 지난 2022년 하반기 기준 청년 고용률 69.6%를

기록한 화순군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정규직 청년에게 4년간 1인당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청년 창업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푸드트럭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개조 비용, 시설 장비 구입비 등으로 1인당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화순 특유의 청년문화 지원사업도 활발하다. 청년스토리 동아리 모임 지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독서문화 진흥 사업, 청년 공동체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조미희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가치 있고 실질적인 화순군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해바라기 황금물결 기대하세요



김한중(왼쪽 네 번째) 장성군수가 지난 22일 농업인단체 회원들과 황룡강 하천부지에서 해바라기 모종을 심고 있다. <장성군 제공>

### 10월 5~13일 개최...허브정원에 해바라기 3만 본 식재

올가을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에 해바라기 황금물결이 펼쳐진다.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10월5~13일 열리는 황룡강 가을꽃축제 준비가 본격 시작됐다. 올해도 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 백일홍 등 다

양한 가을꽃이 황룡강을 수놓을 예정인 가운데 장성군은 최근 힐링 허브정원부터 장안교까지 이르는 드넓은 부지에 해바라기 3만 본을 심었다. 대규모로 조성한 해바라기 꽃단지는 축제객들의 시선을 압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을꽃축제가 열리

는 기간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바라기 꽃단지 조성에 함께한 김한중 장성군수는 "농업인단체 회원들과 함께 올해 가을꽃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해바라기를 대량으로 심었다"면서 "전남 대표축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AI·디지털 역량 강화...나주시, 구직·재직자 경쟁력 높인다

### ChatGPT·스마트폰 교육 등

나주시는 나주새일센터에서 구직자와 재직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ChatGPT를 이용한 업무 효율화 교육'과 '누구나 쉽게 배우는 스마트폰 길라잡이 교육'을 새롭게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취업 경쟁력과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ChatGPT를 활용해 실제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다룬 예정이다. ChatGPT를 이용한 업무 효율화 교육은 기본 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본과정에서는 ChatGPT의 개념과 기초적인 활용 방법을 배우며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학습한다. 심화과정에서는 실습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스마트폰 길라잡이 교육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디지털 소외 계층, 혹은 처음 스마트폰을 접하는 이들을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부터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며 디지털 기기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백호 임제 어린이 글짓기 대회 참여하세요”

### 나주시, 9월 20일까지 접수

조선의 천재 시인이자 당대 명문장가로 꼽히는 나주 출신 백호 임제(林樾)의 후예들이 무한한 상상의 나라를 펼친다. 나주시는 백호문학관이 전국 어린이 대상으로 제8회 백호 임제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글짓기 주제는 '이름'으로 이름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과 경험을 글로 쓰고 이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 제출하면 된다. 작품 규격은 4절지 도화지로 수채물감, 크레파스, 색종이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도 된다. 글은 시, 산문 등 형식에 제한이 없다. 참가는 나주시를 비롯해 전국 어린이(만 6세 이상 12세 이하) 누구나 가능하다. 오는 9월 20일까지 백호문학관(나주시 다시면 회진길 8)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응모작품은 심사를 거쳐 백호상(대상) 1명, 견재상(최우수상) 2명, 소치상(우수상) 10명 등 40명을 선정해 오는 10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10월 26일 오후 3시에 백호문학관에서 빛가람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함께 시낭송 콘서트로 진행한다. 이날 우수작 수상자는 자신의 수상작을 직접 낭송하게 된다. 수상작들은 내년 6월까지 백호문학관 기획전시실에 특별 전시된다. 대회 일정, 응모 절차 등 문의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공지사항)·SNS 또는 백호문학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서 아이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이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자유롭게 자신만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한 다양한 작품이 많이 접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장흥군,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 348억 확보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선정 인구 감소·지방소멸 위기 돌파

장흥군이 계속되는 인구감소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지자체가 소유권을 갖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장흥군에 따르면 군에 전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조지원 형식의 정책 한계를 실감하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수자원공사의 공모사업인 택지지원사업에 선정돼 모듈러임대주택 소규모 단지를 조

성할 수 있는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달에는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모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에 최종 선정돼 100세대 조성 사업비 328억원을 확보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다양한 가구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귀촌인, 귀향인, 청년창업인, 신혼부부, 기업근로자 등 다양한 세대들이 지역에 안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시설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담양군 '소소한 공생 어울림 장터' 개최

### 영산강 문화공원에서 31일부터 수공예품·먹거리 등 제품 판매

담양군과 담양군농부리공동체지원센터가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영산강 문화공원에서 '소소한 공생, 어울림 장터'를 개최한다. 지난 6월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주민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내 공동체 등 26개 업체가 참여해 수공예품, 먹거리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쓴 덕담 캡슐 뽑기, 포토부스 이벤트와 더불어 죽녹원 일대와 어우러진 포토존과 휴식 공간 등 볼거리, 먹을거리, 문화행사 등이 다채롭게 행사장을 채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지역 내 공동체의 우수성을 알리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사회적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꾸리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부모님을 모셔도 좋은 "동행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 재활치료실 운영**  
중증재활 / 인지기능 수술후 재활
- 요양병동 운영**  
일반요양 / 전담간병인실운영 (24시간 간병인 상주)
- 한의 집중치료**  
침·뜸·부항·약침·물리요법 등의 치료실 운영

**의학, 한의학 협진**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 수술 후 재활치료 | 근골격계 통증치료

-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가 병원1층에서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직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병원내 생활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인용기간] 2020.10.19 ~ 2024.10.1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 062) 720-2000